



일주문

### “불교 뿌리 알아야 정체성 확립”

한·중 선종법계도 제작 해월 스님



신라 말 고려 초 선법전래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또 중국 법계도에는 초조 보리달마부터 이조 혜가, 삼조 승찬으로 이어져 태고보우스님과 나옹화상을 통해 한국으로 전해지는 흐름을 표시하고, 중국선종지도도 수록했다.

스님은 “한·중 선종법계도를 제작하기 위해 1년간, 법맥이 기록된 송사 육파집경판(조선훈기 소설 추정) 복사본을 기초로 하고, <선학

### 한국불교 전체흐름 쉽게 이해되길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최근 한국선종법계도, 중국선종법계도를 도표로 제작한 동화사 강주 해월스님은 “제대조사님들의 발자취를 정확히 들여다 보아야 미래를 볼 수 있다”며 “법계도를 통해 한국불교의 전체흐름을 쉽게 이해했다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선종 법계도에는 태고보우 스님부터 시작되는 고려, 조선, 근세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법맥과

사전 <선원총람>도 참조했다”며 “강원교육용으로 제작하다보니 미묘한 사안인 선맥, 강맥, 율맥, 은맥, 법맥 등의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해 이런 부분은 종단차원에서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상반기에 인도교리사와 교리발달사 도표를 제작하고, 하반기에는 한국대표스님 금속문을 정리, 한국불교를 가르치는 텍스트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531 985-4405.

김원우 기자 www.km@buddhania.com

### “울산 변화 주도 신도회 뿔터”

울산광역시신도회 제 15대 박동철 회장



“울산의 재가 불자들이 힘을 모아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물질만능의 세상을 인간 중심의 밝은 사회로 바꾸는 데 한 몫을 할 것입니다.”

6일 남운프라자에서 열린 조계종 울산광역시신도회 회장 이·취임법회에서 제 15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동철(62·세한종합물류회장) 회장의 각오다. 박회장은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에는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앞

### 불교합창제 전국규모로 키울 것

장서야 한다”며 그간 폭넓은 사회 활동으로 다져진 인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제5대 경남도의회 의원, 초대 울산시의회 의원, 밝은사회클럽 한국본부 부총재 등을 역임한 박회장은 “울산의 불교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불교적 사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1년부터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을 위한 재가자들의 봉사모임이었던 불경협의회 활동을 10년동안 해온 박회장은 울산

의 불교 현황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 현재 12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신도회의 조직 강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조직의 내실이 다져지면 ‘밝은 생각, 밝은 행동’의 주제인 시민들의 의식 교육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 강좌, 시민대토론회, 산사 예술제 개최를 비롯 매년 열고 있는 울산시 불교합창제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여 울산 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 천미희 기자



### 대승종 중장기 발전 방안 논의

대승종총무원장 일오는 5일 경기도 안양 총무원에서 종회를 열었다. 이날 종회에서 표교원·감찰원법과 포교사단 정관이 개정됐으며, 중장기 중장기 발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사진은 종회 후 기념촬영한 모습. 앞줄 오른쪽부터 교무부장 영인, 종회부 의장 해심, 종회의장 법정, 총무원장 일오, 재무부장 성공 스님.



### 부산 두송복지관 장학금 전달

부산 두송복지관(관장 지현)은 2월 26일 관사에서 사회복지법인 늘기문화재단 2002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현 스님은 이날 이민정 외 중고생 20명과 장지영 외 대학생 8명에게 총 1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은 관장 지현 스님이 부산 다대고 3학년 이진주 양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



### 무불선학대학원 첫 졸업식

무불선학대학원 제1회 졸업식이 2월 24일 법장 스님(수덕사 주지)을 비롯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덕사에서 개최됐다. 2년 과정의 무불선학대학원은 이날 3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졸업논문예 통과한 15명에게 선법사 자격을 부여했다. 사진에서 법장 스님이 15명의 졸업생에게 선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 광주 생명나눔회 치료비 전달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일철)는 7일 전남대병원에서 97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후 무월성 과사증을 앓고있는 조선희 동포 김인호씨에게 치료비 3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 생명나눔회는 현재까지 모두 1200만원을 환자들에게 후원했다. 사진에서 일철 스님은 김인호씨를 위로하고 있다.

## “가정폭력 근절, 불국정토 서원”

임오년을 뒀는 불자 ⑩ 영도가정폭력상담소 김은자 실장

부산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유일의 가정폭력상담소인 대각자비원 부산 영도가정폭력상담소 김은자(38) 상담실장은 “가정폭력문제는 곧바로 사회문제화되기 때문에 불교가 앞장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도가정폭력상담소가 문을 연 것은 1999년 11월. 그러나 영도가정폭력상담소는 1982년 3월부터 무료 법률상담, 인생상담 등 광범위한 상담을 해왔던 자비의 전화가 모태가 된 경륜있는 상담소로 통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문제를 더욱 전문적으로 다룰 뿐 그간의 상담실 운영의 노하우는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년전 여성의 인권에 관심이 많은 김씨가 실장직을 맡으면서 영도가정폭력상담소의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타 상담기관과의 연계 행사, 소식지 발간, 올바른 가족관 정립을 위한 강좌 추진, 외국인 인권 지원사업, 성교육 강좌 개설 등이 모두 활동 영역이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나 법률적인 지원, 금전 지원, 재활 지원 등이 필요한 상담자의 경우 타 상담기관이나 전문 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생각이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고통을 겪을만큼 겪고 난 뒤 최악의 상태에서 상담소를 찾는다. 그것이 가장 안타깝다. 그래서 가정문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시키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 결론관을 정립하는데 불교적 생명관과 인생관만큼 유호한 가르침은 없어요”라는 김실장의 의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없어요. 외국

### 외국인 노동자 위한 쉼터 설립 목표

“빈민가 어린이집의 교사, 부산불교교육원내 탁아방 운영을 하면서 관심밖으로 밀려난 여성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김실장은 올해 세우려는 계획이 많다. 불교적 가치관을 토대로 하되 불교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생각하는 김실장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사이버 상담실을 마련하기에 여념없다. 조미숙 상담원과 함께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100여건의 상담을 소화하는 것 외에도 가정 폭력 근절을 위한 길거리 홍보,

공간이 아쉬워요. 소장자인 정각스님의 지원을 받아 불교계가 운영하는 쉼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작은 노력이 좋은 세상, 불국토를 만드는 근간이 된다고 굳게 믿는 김실장은 보다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후원을 결성해 추진중이다.

부산=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 소프라노 강태복 씨 별세

소프라노 강태복 씨가 3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3세. 강 씨는 불광사, 법연사 등의 합창단을 지휘하고 강남포교원 합창단을 창단하는 등 불교음악 발전과 찬불가 보급에 기여했다. 49재는 4월 20일 서울 정릉 삼곡사. 02815-1550

### 고침

▷지난호(359호) 4면의 동정 중 ‘경각 부산 청정화합시민연대 상임대표’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부산 청정화합시민연대 정각 스님은 부산 미용사 주지입니다. 또 같은 면 이수덕 불교 TV 시장은 케이블 P2형식이 아니라 케이블 P2형식 이사로, 부산불교교실연합회 박수복 회장은 ‘제4대 회장’으로,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은 2월 27일이 아니라 3월 14일 로 바로잡습니다.

▷21면의 안해백일장 대상 수상자 김희용 양의 인터뷰 기사 중 ‘수 있는 소설을 많이 쓰고 싶다’고 자랑의 포부를 밝혔다’가 전산오류로 빠졌습니다.

상표 등록

# 미수터

설치 2~3주전에 미리 각 지역 대리점에 연락주시면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도체 반도체

## 안전 전자 인등

● 본 미수터 반도체 안전 전자 인등은 상표 실용, 위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3건)

서울, 경기 서부대리점  
성남 031-756-6307

서울, 경기 동부대리점  
하남 031-791-8871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053-591-4861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764-9396

긴급 서비스  
기술 지원 팀  
011-9996-8872

주식회사 TG 반도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전화 031-792-8867~8